

1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?

- ① 바리새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사사리아인
- ③ 율법교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레위인

2.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제자는 누구 누구인가요?

- ① 야고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베드로
- ③ 안드레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요한

3. 현재 교황님은 누구신가요?

- ① 베네딕토 16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요한바오로 2세
- ③ 베드로 1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프란치스코 1세

4. 다음 친구의 말에 나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나요?



요한이는 매일 시끄럽게 떠들고 친구들을 괴롭혀. 그런데 왜 선생님은 혼내지 않으시지?

-----

-----

-----



†. 찬미예수님. 사랑합니다!♡  
우리친구 여러분!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 
저는 단구동 성당에 있는 **이태섭 요한사도**  
신부님이에요. 특별히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자,  
교황주일로 오늘 하루는  
우리친구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  
기도할 수 있는 하루되었으면 해요.



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세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.

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각각 다른 대답을 하세요.  
하지만 우리는 그 대답들 안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.  
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세상의 어떤 것 보다  
**예수님을 '첫 번째'로 선택**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.  
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.

매 주 '친구 생일파티', '학원보충수업', '가족여행', 'pc방' 등의  
유혹이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보다  
먼저 선택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에요.

하지만!!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,  
나에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닌 그 순간에도  
**예수님의 첫 번째는 '나'라는 것**이예요.

우리친구들은 '내일', '다음에', '나중에'  
예수님을 만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,

**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친구들을 '오늘', '지금', '먼저'**  
**만나길 바라**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.

우리친구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'첫 번째'가 되길 바라며,  
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길 바라며,  
신부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늘 기다릴게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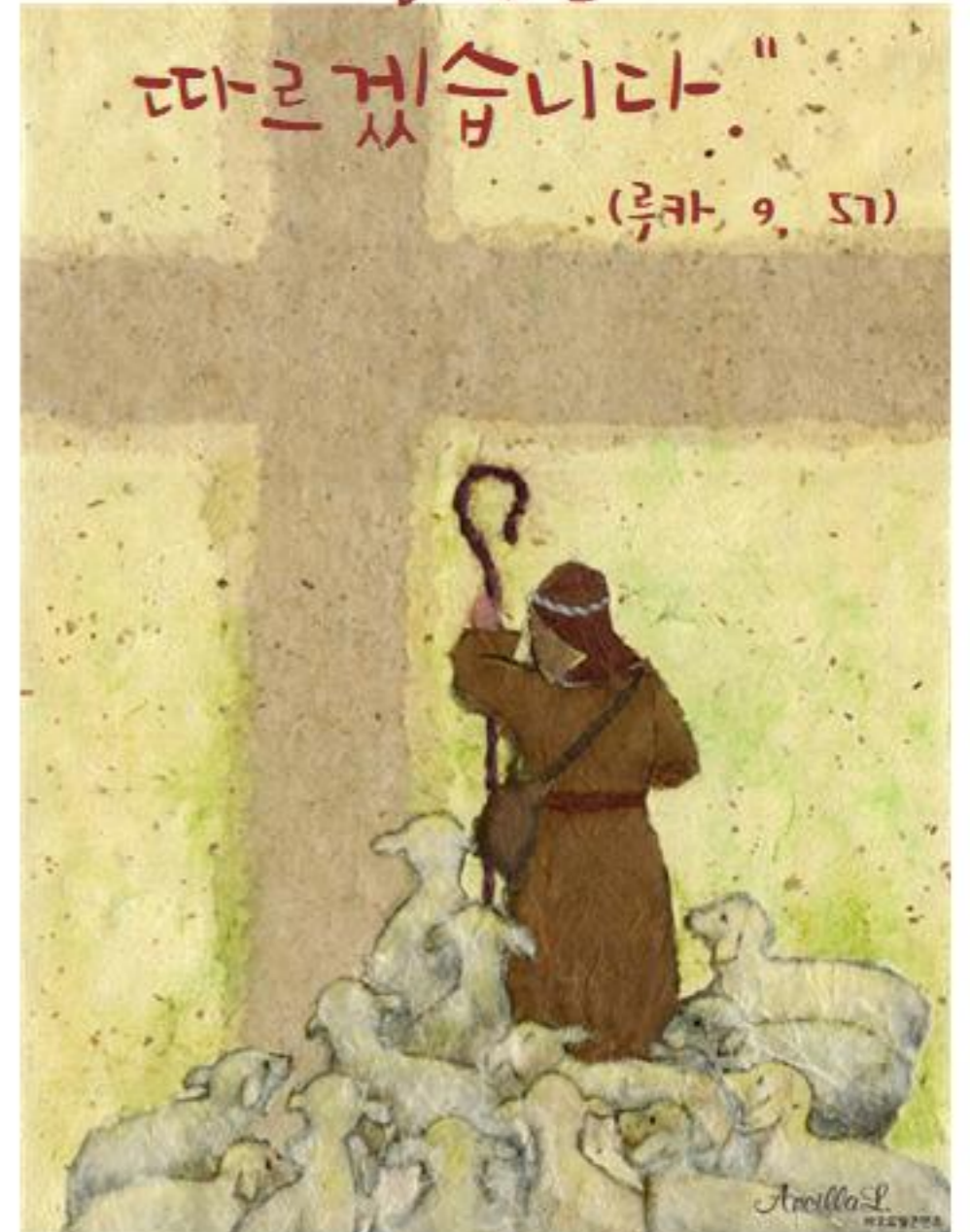


"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 
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."

연중 제 13주일  
(교황 주일)

"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 
스승님을

따르겠습니다."  
(루카, 9, 57)




성광

학년

이름

서명

1독서 **여행** 

✦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. 19,16-19-21

그 무렵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. <sup>16</sup> “아벨 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.” <sup>19</sup>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.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, 열두 번째 겨릿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.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겹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. <sup>20</sup>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. “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.”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. “다녀오너라.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?” <sup>21</sup>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,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.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서서 그의 시종을 들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2독서 **여행** 

✦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. 5,1.13-18

<sup>1</sup>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.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. <sup>13</sup> 형제 여러분,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.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. <sup>14</sup>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. 곧 “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.” 하신 계명입니다. <sup>15</sup>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,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. <sup>16</sup> 내 말은 이렇습니다.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.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. <sup>17</sup>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,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.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<sup>18</sup>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**여행** 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9,51-62

<sup>51</sup>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,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. <sup>52</sup>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.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. <sup>53</sup>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.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. <sup>54</sup>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, “주님,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?” 하고 물었다. <sup>55</sup>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. <sup>56</sup>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. <sup>57</sup>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, “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 <sup>58</sup>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,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.” <sup>59</sup>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“나를 따라라.” 하고 이르셨다. 그러나 그는 “주님,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.” 하고 말하였다. <sup>60</sup>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, “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,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.” 하고 말씀하셨다. <sup>61</sup> 또 다른 사람이 “주님,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.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.” 하고 말하였다. <sup>62</sup>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 “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 오마리아수녀의  
주일 복음 그림  
- 바오로딸쿤텐츠

